

광주·전남 학교급식 종사자 중도 퇴사율 해마다 증가

“열악한 학교급식종사자들 노동환경, 퇴사·충원 미달 유발”

“근본 대책 마련 안되면 지금보다 신규채용 어려워 질 것”

광주와 전남지역 학교급식종사자의 퇴사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규채용은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급식종사자 퇴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1만3944

명이 퇴사했다.

2020년 3447명, 2021년 4486명, 2022년 5408명이며 퇴사자 비율은 각각 40.2%, 45.7%, 55.8%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20년 116명(23.3%), 2021년 158명(40.5%), 2022년 151명(39.7%)이 중도 퇴사했다.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도 각각 5명, 5명, 17명이며 신규채용 급식종사자도 220명 모집에

12명이 미달됐다.

전남 학교급식 퇴사자는 같은 기준 각각 234명(39.7%), 271명(46.5%), 250명(59.2%)이며 6개월이내 퇴사는 21명, 45명, 46명을 기록했다. 신규채용 급식종사자 311명 중 6명이 모집되지 않았다.

퇴사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 84.8%, 충남 78.0%, 경기 67.7% 순이다.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는 충남 50.2%, 인천 49.7%, 부산 47.8%

이다.

강득구 의원은 “열악한 학교급식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퇴사와 충원 미달을 유발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보다 신규채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재환기자



4.19민주묘지 묘역정리하는 관계자들

4.19혁명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강북구 4.19민주묘지에서 관계자들이 묘역 정리하고 있다.

“광주·전남 고교생 현혈자, 3년 만에 절반 톱”

코로나19 직전 5만6000명대...지나해 2만7000명 불과

광주·전남 지역 고등학생 현혈자 수가 코로나19 유행 직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고등학생 현혈자 수는 2만74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직전 해인 2019년 당시 집계된 5만6384명 대비 약 48% 수준이다. 혈액원은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이 고등학생 현혈자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현혈·개인 봉사 등 같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들이 대입전형자료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내 고등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현혈자 수 또한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광주·전남 고등학생 수는 2019년 10만1803명을 기록하다 이듬해 9만4758명으로 줄더니 지난해에 이르러선 8만6606명으로 조사됐다.

혈액원은 단체현혈 미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현혈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현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슬비기자

작년 광주·전남 상장사 부채비율 ‘경중’ ...장사 ‘속빈강정’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12월 결산법인 37개사 중 34사 실적 분석

광주·전남 지역 12월 결산 상장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가 확대되면서 부채비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37개사 중 34사(코스피14사, 코스닥 20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79조 5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3조 6063억원으로 전년(-7조 413억원)에 비해 26조 5650억원, 순이익도 -25조 3665억원으로 전년(-5조 2729억원)에

비해 20조 936억원이 각각 감소하는 등 적자 폭이 커졌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은 각각 32.08%포인트, 24.28%포인트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406.78%로 전년 139.32%에 비해 267.46%포인트나 높아졌다.

지역 내 실적 비중 최상위사인 한국전력(지역 전체 매출액의 86.63%)을 제외할 경우 매출액은 10조 6421억원으로 전년 대비 8.79%(8596억원)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0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4%(820억원)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688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4036억원) 됐다.

한국전력이 적자지속(순손실 25조 2979억원)하는 등 지역 코스피 상장법인의 순이익은 적자가 지속됐다. 위니아, 오이솔루션, 우리로, 고려시멘트가 적자전환하는 등 지역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상장법인 34사중 총 18사가 흑자를 시현했고 이 가운데 2사가 흑자전환했다.

코스피 상장사 중 흑자를 낸 곳은 8사(1사는 흑자전환), 적자기업은 6사였으며, 코스닥 흑자기업은 10사(1사 흑자전환), 적자기업은 10사(적자전환 4사)로 나타났다.

최이슬기자

목포대, 국립대 초유 15개 학과 폐지

학사구조 개편안 마련

목포대학교는 최근 수요자 중심의 고강도 학사구조 개편안을 교수회의를 거쳐 학칙으로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우선,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강화한 융합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65개 모집단위를 37개로 축소했다.

또 약 30%에 해당하는 15개 학과를 폐지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신설·개편했다.

기존의 자연과학대학은 폐지하고 전남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인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수요에 맞춰 생명·의과학대학으로 개편했다.

또 해외로 나아가 글로벌인재 양성과정, 자율전공학과와 성인학습자를 위한 미래 라이프대학을 신설했다.

목포대는 지난 6개월간 많은 자문그룹과 함께 혁신안을 준비해 왔으며, 올 2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선학과 및 교수진과 협의, 대학구성원들과의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대학 교육의 실제 수요자인 재학생과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민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혁신안을 마련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